

“DJ정신 계승”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활동 본격화

3천200여명 발기인 참여 창립대회 개최 내년 1월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전개

김대중 전 대통령 유산과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철학과 사상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한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이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2024년 1월6일)을 앞두고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추진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창립대회에는 권노갑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재정·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재단 부이사장, 3남 김홍길 국회의원, 3천200여명의 발기인, 시·도 민들이 참여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강정재 전 전남

대 총장, 김정길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 상임대표, 박만규 전 흥사단 이사장, 이철우 전 광주YMCA 이사장,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명자 전 오월여머니집 관장, 김재형 전 조선대 총장대행, 이정재 전 광주교육대 총장, 김승원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재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김승남·강은미·이병훈·송갑석·이용민 국회의원, 선출직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추진위원회 운영집행위원장을 맡은 최경주 이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내년 1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 지도 이념을 구현하고 실천함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민주주의 후퇴, 경제위기, 남북의 평화위기 등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



1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대회’에 참석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각계각층 시·도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이 태동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실천한 평화와 인권, 화해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재단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에 지회를 창립하고 탄생 10

0주년 기념사업을 전개하면서 적극적으로 김대중 정신 계승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세우고 현실정치에서 실천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광주·전남에서 김대중재단이 새롭게 태어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세계적인 지도자를 배출한 우리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대통령 선양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솔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이끌며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삶과 시대정신을 이어가자”며 “광주·전남 김대중재단도 민주·평화·인권의 김대중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더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은 2024년 1월 6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가 남긴 정신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각종 기념사업을 비롯한 김대중 아카데미, 연구활동, 봉사활동, 역사탐방, 국제연대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재정·박선경기자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용역비 등 道 추경 확정

본예산비 7천652억 증가 총 12조5천751억원 규모

지역 경제와 농수축산업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시책을 담은 전남도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전남도회의의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11조8천999억원보다 7천652억 원(6.5%) 증가한 12조5천751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6천110억원(6.6%) 증가

한 9조8천999억원, 특별회계는 528억원(6.0%) 증가한 1조1천269억원, 기금은 1천149억원(6.9%) 증가한 1조5천732억원이다.

이는 본예산 예산 규모 증가율 2%를 포함해 전년 대비 9.4% 증가한 예산으로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 증가율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에 843억원을 추가 적립해 총 1천662억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했다. 건전재정 운영 기조는 유지하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에 과감히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편성 예산은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대불산단 대교 연결 프로젝트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천만원 ▲목포 구도심-오룡신도시 ‘전남형 트램’ 구축 사전 검토용역비 3억원 ▲무안국제공항 신규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전세기 유

치 손실 보전 등 19억원 ▲공항 활성화 홍보 3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283억원 ▲청년농 스마트팜 시설 지원 18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32억원 ▲전국체전 시설 운영 및 도 선수단 경기력 향상 58억원 ▲지방하천 정비 332억원 ▲지방도 정비 182억원 등이다.

장현범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에도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담양 봉안지구 농촌공간 정비 박차

농림부 공모 선정...5년간 101억 투입 유해시설 정비

전남도는 18일 “담양군 무정면 봉안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2차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마을 유해시설

을 철거·이전 후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5년간 담양군에 국비 50억5천만원 등 총사업비 101억원을 투입해

약취 등 환경오염 주범인 둔사 6동, 우사 6동, 빈집 12호 등 농촌마을 내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초보 영농인과 마을 주민들을 위한 농업체험실습센터, 치유공원 조성 등 재생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전남도는 지난 3월 1차 선정된 ▲나주 문평 오토지구 ▲곡성읍 구원지구 ▲완도 청산 농업유산지구 ▲함평 신평 동정지구와 함께 총 5개 지구

가 신규지구로 확정됐다.

윤재광 농업정책과장은 “유해시설 정비가 완료되면 약취·유해 물질 없는 쾌적한 농촌공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2년부터 10개 시·군, 11개 지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돼 국비 679억원 등 총사업비 1천358억원을 확보했으며 보상, 기본·시행 계획 수립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광주청년드림수당’ 2기 130명 추가 모집

5개월간 250만원 지원

광주시는 18일 “2023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2기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39세의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포함)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130명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은 20일부터 29일까지 광주청년드림수당 공식사이트(<http://dream2030.co.kr>)를 통해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 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추가로 선정된 구직 청년에 대해서는 7월부터 5개월간 총 250만원의 드림수당을 지원한다. 또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구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정 결과는 7월 초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된다. 2기 참여자는 이후 개최되는 오

리엔테이션에 참여하고 청년드림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김동현 청년정책관은 “고용시장 침체의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이 드림수당 사업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道, ‘고향사랑e음’ 기능 개선

전남도는 18일 “기부자가 편리하게 고향 발전에 동참하도록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1단계이던 기부 절차가 7단계로 간소화됐으며 해외 체류 국민도 기부에 참여하도록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서비스를 하는 등 기부하기 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또 계절별, 포인트별 답례품 검색 기능을 추가해 기부자가 기부 금액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정기자

아마가세 / 후쿠오카 / 기타큐슈 / 삿푸

일본 규슈 골프여행 2박 3일(54H)

8명 이상 출발 가능 | 항공은 에어부산 OR 진에어(부산/인천 출발)

899,000원 부터~ (기사&가이드 팀 4만원 별도)

무안 출발은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 양국 정부 인허가 조건 ※ 운항스케줄은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가격이 다르오니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대표 이사 **최승환**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2억원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 / 제 100-000-2023 0227 3586호

◆ 공동조건: 여행경비는 1인 기준, 1억원 여행자보험가입, 골프54H, 전 일정 식사 비용(중식 제외), 숙박비 ◆ 최소출발인원: 8명 ◆ 사용골프장: 삿푸모리 G.C., 아마가세 C.C.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불포함 사항: 국내수송, 기사 가이드팀별도, 락커비, 클럽중식비, 여권, 개인경비, 골프캐디 ◆ 상의요금은 날짜 및 인원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사용호텔: 아마가세 유리 료칸(天瀾瀾里旅館)

조이투어
TeL.1522-1901